



광주비엔날레 100배 즐기기

나만의 관람일정 세우고 동선 만들어라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는 '만인보'를 주제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민속박물관, 양동시장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31개국 134명의 작가들이 현대미술의 진수를 담은 작품 500여점을 선보인다.

또 시민 참여형 전시인 '나도 비엔날레 작가 : 만인보=1'은 광주미디어센터, 광주시청, 전남대치과병원, 광주방립초등학교, 이장우가족, 칠석중 등 광주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들 작품을 아무 계획 없이 보면 꼬박 이틀을 투자해도 부족하다.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관람 동선과 일정을 스스로 짜야 짧은 시간에 최대한 즐길 수 있다.

이미지 홍수에 빠져 큰 그림 놓치지 마세요

이번 전시는 전시 주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만인보'인 만큼 사진이 대거 출품됐다. 한 작가의 연작이 편의상 1점으로 구분됐지만, 그 안에는 당게는 수 천장의 크고 작은 사진이 망라돼 있기도 하다.

실제 비엔날레전시관 제4전시실에 설치된 이데사 헨델스(Ydessa Hendelles·미국)의 테디베어 컬렉션 사진 연작은 3000여점에 달한다. 광주민속박물관에서 선보이는 장쭈 고다르의 '영화사'(Histoire Du Cinema)는 상영시간이 265분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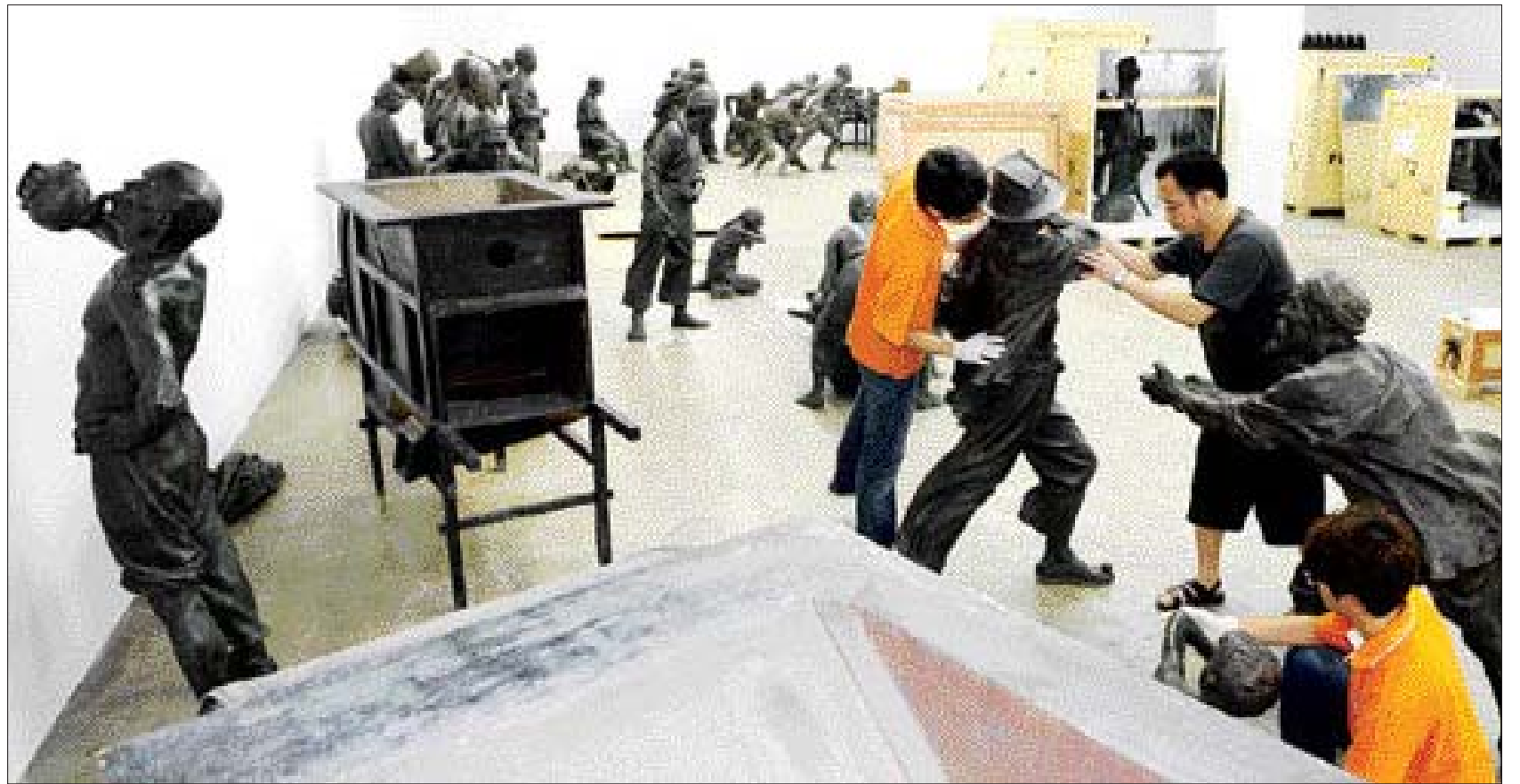
작품 수가 많다 보니, 자칫 '이미지의 홍수'에 빠져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안내 책자를 꼼꼼히 챙기라고 관람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은 전시 기획과 관련해 "현대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하루에 수 만가지의 이미지를 접한다"고 말했다.

전시장에 펼쳐진 수 만가지 이미지 중에서 발길을 사로잡는 의미 있는 이미지를 찾아내 감동을 받는 것은 관람객의 몫이며, 또한 이번 전시를 만끽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관계자들이 중국의 국보급 조각 '렌트 콜렉션 코트야드'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전정보 꼼꼼히 챙기면 작품이 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마릴린 먼로의 사진이 출품됐다. 하지만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마릴린 먼로의 사진을 찾을 수 없다.

비엔날레전시관 제1전시실의 안드레 데디에네스

의 '죽음을 보여주는 마릴린' 속 마릴린 먼로는 머리와 상반신 위로 담요를 뒤집어쓰고 있어 전혀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다.

또 광주시립미술관에 전시된 모턴 바틀리의 '인형'

또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진작가 모턴 바틀리가 세상에 떠난 뒤 방안에서 발견된 이 작품은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기본 정보는 전시장에 붙어있는 작품 설명과 안내 책자를 꼼꼼히 챙기면 된다.

또 전시장 곳곳에서 감상을 돕는 도슨트에게 설명을 들으면 더욱 감동적인 관람을 할 수 있다.

저렴하다.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은 성인 1만4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인데 '가족입장권'을 사면 4인 가족이 많게는 1만원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KB카드, 광주은행 VISA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GS&Point 보너스카드 로 입장권을 구입하면 기존 가격보다 15% 할인받을 수 있다.

(단체요금적용)을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

또 비엔날레 입장권을 가져 가면 서울에서 열리는 2010한국국제아트페어(5000원 할인), 국립현대미술관 '아시아 리얼리즘'전(1000원)을 저렴하게 볼 수 있다.

이 밖에 비엔날레 관람객들은 다이너스티 CC(합평·담양)의 그린피 1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다이너스티 CC 회원은 비엔날레 입장권 구매시 단체요금을 적용받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기간 통용권' 등 할인 혜택 누리세요

좀처럼 보기 힘든 전시, 며칠 동안 광주에 머물면서 충분히 감상하려면 '행사전기간 통용권'을 추천한다.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은 당일엔 한해서 관람할 수

있지만 '행사전기간 통용권'은 전시 기간 아무 때나 관람이 가능하다. 가격은 어른 3만원, 청소년 2만원, 어린이 1만원.

가족 단위 관람객은 '가족 입장권'(2만6000원)이

관광·전시 할인...입장권 버리지 마세요

비엔날레도 즐기고 교통·관광 등 다양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타지역 관람객들은 '2010 광주비엔날레 관람KTX 문화열차'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광주를 찾을 수 있다. 어른 6만9000원, 소인 6만5000원만 내면 광주비엔날레를 무료 관람할 수 있고, 여행자보

험에도 자동가입된다. 문의 16007788.

또 비엔날레 입장권을 가지고 가면 지역 유명 관광지 및 골프장 등지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들은 나주영상테마파크(500원~1000원 할인)와 나주 황포돛배(1000원), 함평국향대전

전시장 순환 셔틀버스...주차장 5곳 2400면 대기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관람객들의 편안한 전시장 방문과 관람을 위해 행사장 주변에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전시 공간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양동시장 등지로 분산돼 있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관람객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지 관람객들을 위해 전시 기간동안 매일 오전 9시35분~오후 6시12분 비엔날레 전시관 정문에서 출발해 광천동유·스퀘어~월드컵경기장~상록회관~양동시장~광주역~비엔날레를 1시간

간격으로 오가는 순환버스 2대를 운영한다. 또 매일 오전 9시30분에는 광주송정역에서 ▲비엔날레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5·18민주묘지 ▲팔암서원 ▲홍길동테마파크 ▲광주호수생태원 ▲가사문학관 ▲소쇄원 ▲목과미술

관 ▲한벽당 등지를 잇따라 찾아갈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탈 수 있다.

주차 장소는 비엔날레 주차장(600면)을 비롯해 국립 박물관 주차장(400면), 전남도교육청 주차장(300면), 광주문화회관 주차장(700면), 비엔날레 정문 주변도로(50면) 등 5곳 총 2405면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은 시내버스 용봉 83, 상무 64, 송정 19, 일곡 38, 금남 58, 금남 56, 금남 57, 철단 95번을 타면 된다.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종합안내소'도 운영된다. 종합안내소는 미야보호소와 함께 운영되며 비엔날레 전시관 앞, 골다리 입구, 시립미술관 옆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응급환자와 부상자들을 위한 진료소(비엔날레관 1층)도 있다.

물품보관소는 전시관 입구에 설치돼 있다.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단체 관람객 요청엔 30분 연장

비엔날레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단체 관람객의 요청이 있으면 30분 가량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 사전에 광주비엔날레 재단

과 협의해야 한다.

입장권은 매일 개관 30분 전인 오전 8시30분부터 폐관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중외공원 내 비엔날레 전시관 정문 ▲비엔날레 전시관 1전시실 앞 ▲광주시립미술관 등 3곳에서 판매한다. 전시장 입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비엔날레★ 1박2일 패키지 - 소외노자 본인동행 - 299,000~

★가족 4인 이상 동행★ 2박3일 패키지 - 329,000~

일본

황금 연휴 후서 일본 규슈관광 ALL포함

- 일본 규슈권 온천(일본 특산 특급) 패키지 - 4일 = 549,000
- 구룡산 스키장 겨울 전용패키지 숙박 - 4일 = 569,000
- 류큐 후쿠오카 시모네 황금 3일 - 4일 = 689,000
- 일본속의 중심 야마구치현 스키장 패키지 4일 = 629,000
- 간베이마 후서 연휴 소외노자 4일 = 329,000
- 가족 규슈 규슈관광 패키지 2박3일 = 369,000

상인등장권 패키지

★무산 강가까지 리얼★

★무산 대안 작업★